BNK 경제인사이트

ISSN 2384-3519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
NO. 2019-10 (2019년 10월)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한국과 아세안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금년 11월 25~26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은 5년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아세안 국가 전반에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아세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등 동남권과 밀접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무역측면에서는 중국 다음의 2위 교역대상지역이라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중국 등을 넘어서는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적교류 역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남권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아세안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비트렌드에 주목하여 한류에 관심이 높은 고소득층 및 젊은 신중상층을 타깃으로 한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이슬람, 불교 등 아세안 국가의 각기 다른 종교 및 문화를 감안한 소비재 수출전략도 중요하다. 동남권 지자체에서는 아세안 주요 도시들과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내 거주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

한국과 아세안간 대화관계[1]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금년 11월 25~26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2009년(제주), 2014년(부산)에 이어 3번째이다. 부산은 5년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아세안 국가 전반에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본 행사 이외에도 경제협력, 문화 ·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하여 교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세안 관계 발전 연혁

- 1989년 : 부분대화상대국 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 1991년 : 완전 대화 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 격상
- 1997년 : 제1차 아세안+3(한중일) /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
- 2005년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 2009년 : 대화관계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 2010년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2014년 : 대화관계수립 25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 2019년 :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예정(부산)

자료 :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1) 아세안 대화상대국 및 부분대화상대국
-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개국
-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 :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참조] 아세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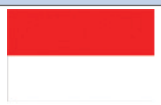
▣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

▣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창립(일명 방콕선언 발표)

▣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및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 가입으로 10개국 체제 완성

아세안 국가별 현황

(십억달러, 달러, 백만명, km^2)

국가		GDP	1인당 GDP	인구	면적
	인도네시아 Indonesia	1,022.5	3,871	264.2	1,904,569
	태국 Thailand	504.9	7,448	67.8	513,120
	싱가포르 Singapore	364.1	64,579	5.6	719
	말레이시아 Malaysia	358.6	11,072	32.4	329,847
	필리핀 Philippines	330.9	2,551	106.6	300,000
	베트남 Vietnam	241.3	3,104	94.6	331,210
	미얀마 Myanmar	68.7	1,299	52.8	676,578
	캄보디아 Cambodia	24.4	1,504	16.3	181,035
	라오스 Laos	18.1	2,566	7.1	236,800
	브루나이 Brunei	13.6	30,668	0.4	5,765

주 : 2018년 기준
자료 :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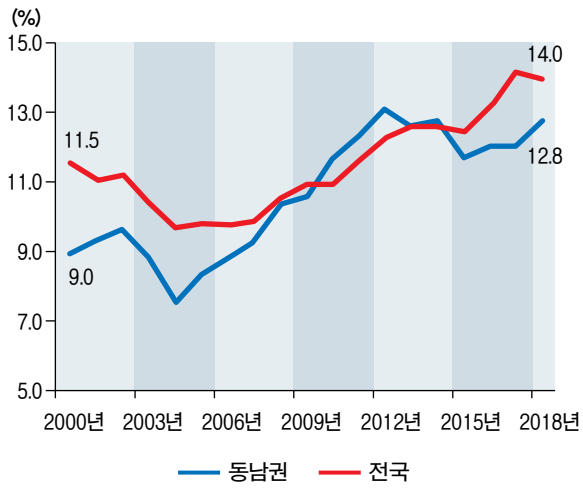
아세안, 동남권 교역대상국으로서 위상 강화

동남권의 대아세안 교역규모(수출입합계)는 2000년 62억달러에서 2018년 250억달러로 연평균 8.1%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2]. 전국도 같은기간 383억달러에서 1,597억달러로 연평균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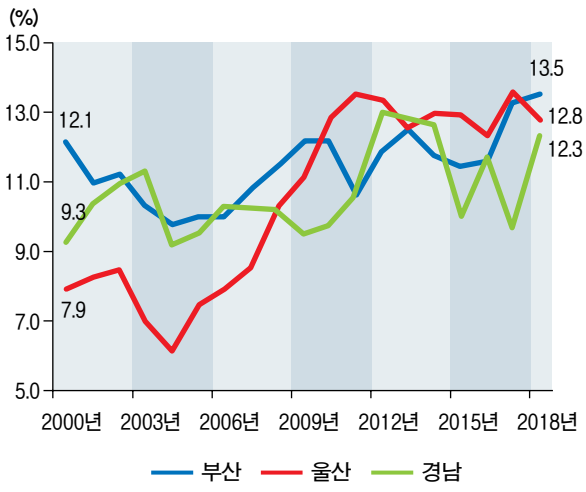
동남권 전체 교역금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9.0%에서 2018년 12.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아세안은 동남권 최대교역국인 중국(13.3%)에 이어 2위 교역대상국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같은기간 미국은 14.3%에서 12.5%로 비중이 축소되며 3위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아세안 교역비중은 부산이 1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12.8%), 경남(12.3%) 순으로 나타났다. 2000~18년중 교역 증가세는 울산이 연평균 9.4%로 가장 빨랐으며 다음으로 부산, 경남 순으로 조사되었다[3].

동남권 및 전국의 아세안 교역비중



부산, 울산, 경남 아세안 교역 비중



주 : 총 교역금액에서 아세안 교역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 같은기간 동남권 총교역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0% (2000년 692억달러 → 2018년 1,960억달러)로 조사
3) 부산, 울산, 경남 대아세안 교역 증가규모(2000년 → 2018년) 및 연평균 증가율
- 부산 : 11억달러 → 40억달러, 연평균 7.5% 증가
- 울산 : 27억달러 → 136억달러, 연평균 9.4% 증가
- 경남 : 24억달러 → 75억달러, 연평균 6.4% 증가

대아세안 수출, 전국과 달리 금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

국내 총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으로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하였다. 대미국(3.6%)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중국(−18.1%)이 감소한 가운데 아세안(−2.1%) 수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동남권은 전국과 달리 금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1%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G2(중국 −7.6%, 미국 11.3%) 수출이 2.2%의 미약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아세안(12.2%)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대싱가포르 수출이 54.3%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52.2%)과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60.5%)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7.8%), 말레이시아(19.5%), 태국(15.3%) 등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도 전국과 달리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전국 대아세안 수출 증가율

(백만달러, %)

구분	2018. 1~9월	2019. 1~9월	증가율
베트남	35,757	36,016	0.7
싱가포르	8,287	9,951	20.1
말레이시아	6,746	6,756	0.1
필리핀	9,028	6,453	−28.5
태국	6,062	5,898	−2.7
인도네시아	6,638	5,812	−12.4
캄보디아	485	519	6.9
미얀마	396	419	5.9
라오스	67	60	−11.3
브루나이	46	59	29.6
아세안 계	73,512	71,943	-2.1

2019년 동남권 대아세안 수출 증가율

(백만달러, %)

구분	2018. 1~9월	2019. 1~9월	증가율
베트남	3,646	3,931	7.8
싱가포르	2,622	4,046	54.3
말레이시아	1,910	2,282	19.5
필리핀	1,317	1,052	−20.1
태국	1,265	1,460	15.3
인도네시아	2,431	1,999	−17.8
캄보디아	83	94	13.2
미얀마	56	70	25.4
라오스	31	37	20.5
브루나이	10	26	155.5
아세안 계	13,371	14,996	12.2

주 : 각년도 1~9월 누적 수출금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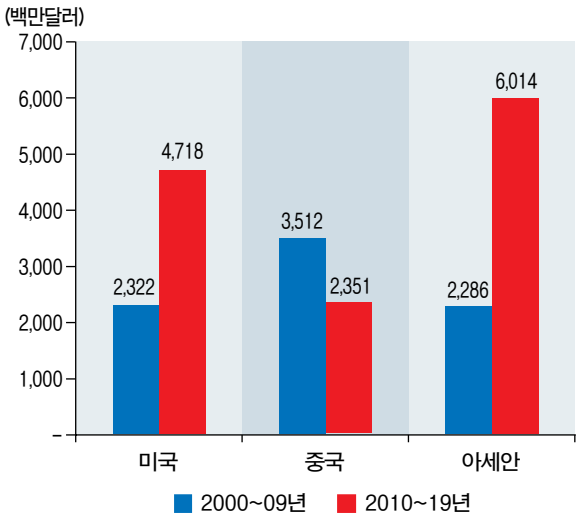
아세안, 동남권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

동남권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액은 2000~09년중 22억 9천만달러에서 2010~19년중 60억 1천만달러로 163.1%의 높은 투자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같은기간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33.1% 감소하였으며 대미국 직접투자액은 10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09년중 13.6%에서 2010~19년중 21.2%까지 상승하면서 아세안은 동남권의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같은기간 미국도 13.8%에서 16.6%로 비중이 높아졌으나 중국은 20.9%에서 8.3%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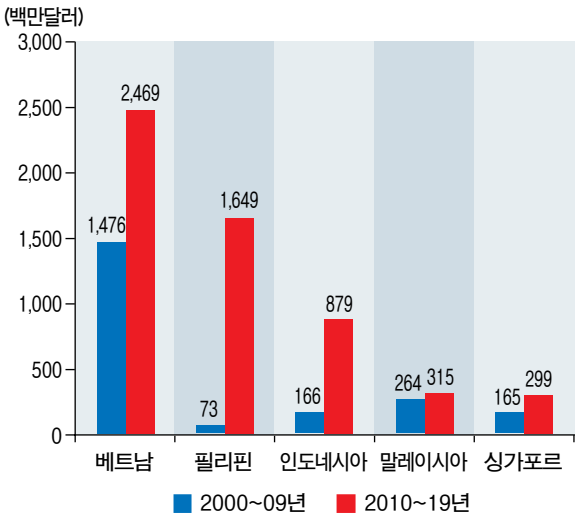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중 동남권의 최대 투자국은 베트남으로 조사되었다. 대베트남 누계투자액은 2000~09년중 15억달러에서 2010~19년중 25억달러로 63.7% 증가하였다. 2위 투자국 필리핀의 경우 같은기간 7천만달러에서 16억 5천만달러로 투자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의 주요국 해외직접투자액



주 : 기간중 누계금액
2019년은 연간 추정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동남권의 아세안 주요국 해외직접투자액



주 : 투자액 상위 5대국 기간중 누계금액
2019년은 연간 추정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아세안 국적의 등록외국인 비중,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

동남권의 2019.6월말 기준 등록외국인은 총 13만 9,568명에 달한다. 이중 아세안 국적은 6만 3,982명으로 4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아세안 국적 외국인 평균 비중이 29.3%인 것과 비교하면 동남권은 아세안과의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아세안 인구분포는 경남이 3만 7,61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1만 9,389명), 울산(6,97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전체 외국인중 아세안 국적 비중이 50.7%로 크게 높았으며 부산은 42.8%, 울산은 34.8%이었다.

국가별로는 아세안 국가중 베트남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절반 이상(52.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15.1%), 캄보디아(10.3%), 필리핀(10.1%), 미얀마(6.1%), 태국(4.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동남권의 등록외국인 현황

(명, %)

구분	전체 외국인(A)	아세안 국적 외국인(B)	비중 (B/A)
전국	1,257,366	367,904	29.3
동남권	139,568	63,982	45.8
(부산)	45,280	19,389	42.8
(울산)	20,058	6,976	34.8
(경남)	74,230	37,617	50.7

주 : 2019년 6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

동남권의 아세안 국가별 등록외국인 현황

(명, %)

구분	등록인구수	비중[1)]
베트남	33,868	52.9
인도네시아	9,668	15.1
캄보디아	6,583	10.3
필리핀	6,482	10.1
미얀마	3,880	6.1
태국	2,946	4.6
말레이시아	371	0.6
라오스	117	0.2
싱가포르	64	0.1
브루나이	3	0.0
합계	63,982	100.0

주 : 1) 아세안 등록외국인 전체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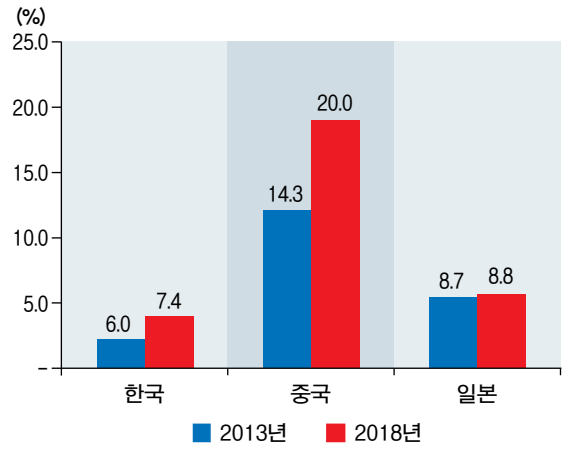
아세안 시장 이해 높이고 맞춤형 진출방안 모색해야

최근 아세안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력수출 품목(기계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제품 등)간 경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교역부문에서는 중국이 아세안 수입시장의 20%를 점유하며 가장 우위에 있다. 통상협력부문의 경우 일본이 아세안 6개국과 양자 EPA[4]를 체결하는 등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하고 FTA 체결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므로 동남권 기업들은 정부의 아세안 교류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 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아세안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장진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시장 동향 및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세안 수입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



주 : 자료확인 가능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합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아세안 FTA 체결현황

구분	현황
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한-베트남 FTA(2015년)
타결	한-인도네시아 CEPA(2019년)
협상중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상품무역과 무역장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협력협정)는 서비스, 인적교류, 법률자문 등 거래 원활화, 제도 조화 등 다양한 경제영역의 협력을 강화

이와함께 아세안 시장의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아세안 시장은 K팝, K뷰티, K푸드 등 한국의 소비재 수출 유망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므로 한류에 관심이 높은 고소득층 및 젊은 신중상층을 타깃으로 한 판매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각기 다른 종교 및 문화를 감안한 소비재 수출전략이 중요하다. 가령 인도네시아[5],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할랄인증 요구로 수출에 제약이 많다. 기존 진출기업의 성공요인 및 실패원인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수출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노력도 중요하다. 현재 동남권은 6개국 12개 도시와 자매결연 혹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자매결연 도시를 추가 확대하고 기존 도시와는 실질적인 교류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동남권에는 아세안 국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동남권의 다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동남권의 아세안 자매도시 현황

구분	국가	도시	결연일자	비고
부산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1994.8.29	자매도시
	베트남	호치민	1995.11.3	자매도시
	캄보디아	프놈펜	2009.11.19	자매도시
	필리핀	세부	2011.12.16	자매도시
	미얀마	양곤시	2013.1.14	자매도시
	태국	방콕	2011.7.11	우호협력도시
경남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1996.5.9	자매결연
	베트남	동나이성	1996.5.13	자매결연
	필리핀	라구나주	1997.4.15	자매결연
	인도네시아	꺼뿔라우안리아우주	2015.2.10	우호협력지역
울산	베트남	칸호아성	2002.6.20	자매도시
	미얀마	만달레이	2016.5.2	우호협력도시

자료 : 각 지자체 홈페이지

5) 인구의 88%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년 10월 17일부터 수출제품들에 할랄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신할랄인증법'을 시행

[참조] 동남권 대아세안 주요 수출품목

▣ 부산

순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1위	편직물	철강판	원동기및펌프	주단조품	무기류
2위	선박구조물및부품	철강관및철강선	선박구조물및부품	철강관및철강선	농산가공품
3위	섬유및화학기계	비누치약및화장품	주단조품	비누치약및화장품	주단조품
4위	기타직물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선박구조물및부품	어류
5위	신변잡화	주단조품	기계요소	기구부품	원동기및펌프
순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1위	편직물	선재봉강및철근	편직물	고무제품	원동기및펌프
2위	플라스틱 제품	신변잡화	자동차	의류	합성수지
3위	기타직물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농산가공품	기타산업기계
4위	합성수지	합성수지	기타철강금속제품	운동 레저용품	신변잡화
5위	신변잡화	인조단섬유직물	운동 레저용품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 울산

순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1위	석유제품	금은및백금	석유제품	석유제품	석유제품
2위	합성수지	석유제품	선박구조물및부품	동제품	자동차
3위	아연제품	합성수지	금은및백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4위	자동차	동제품	자동차	석유화학합섬원료	기초유분
5위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순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1위	석유제품	건설광산기계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자동차
2위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3위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건전지및축전지	원동기및펌프	공기조절/냉난방기
4위	동제품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자동차부품
5위	연제품	신변잡화	자동차	공기조절/냉난방기	철강재용기및체인

▣ 경남

순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1위	공기조절/냉난방기	항공기및부품	선박구조물및부품	선박구조물및부품	무기류
2위	철강관및철강선	철강판	운반하역기계	수동부품	건설광산기계
3위	건설광산기계	반도체	원동기및펌프	철도차량및부품	반도체
4위	전력용기기	섬유및화학기계	철강관및철강선	반도체	항공기및부품
5위	기호식품	공기조절/냉난방기	자동차	전력용기기	기구부품
순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1위	기구부품	건설광산기계	기호식품	영상기기	섬유및화학기계
2위	자동차부품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3위	기타기계류	기호식품	건설광산기계	주단조품	가정용회전기기
4위	플라스틱 제품	공기조절/냉난방기	기타섬유제품	난방및전열기기	레일및철구조물
5위	금속공작기계	종이제품	고무제품	건설광산기계	냉장고

주 : 2019년 1~9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2016.10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하다”, 2019.1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아세안 무역환경 진단과 우리 수출 전략”, 2019.6

KDB산업은행,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최근 변화와 상생협력 방안”, 2018.11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www.fta.or.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www.2019asean-roksummit.kr

IMF, www.imf.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향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걱정은 접어두고
행복은 펼치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드리는
BNK금융그룹이 있으니까

우산을 함께 쓸
친구들이 있으니까

BNK금융그룹과 함께면
행복이 펼쳐집니다!

BNK 우산 DREAM 캠페인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9-10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 행 인 김지완
편 집 인 김성주
발 행 처 BNK금융지주(www.bnkfg.com)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 락 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 쇄 애드벤처
2019년 10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